

미국 10월 내구재주문 동향 및 시사점

10월 내구재 주문실적 급감으로 4/4분기 GDP 비상

- ▶ 지난 10월 내구재주문 실적이 무려 6.2%나 급감하며 최근 2년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금융시장 불안 및 경기 침체 가시화에 따른 제조업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
- ▶ 변동성이 높은 운송부문을 제외한 내구재 및 기업투자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자본재 항목은 각각 4.4% 및 4.0%나 급감하며 경기 침체 악영향이 전 부문에 걸쳐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줌.

10월 내구재주문/운송제외 전월비 -6.2%/4.4%(블룸버그 컨센서스 -2.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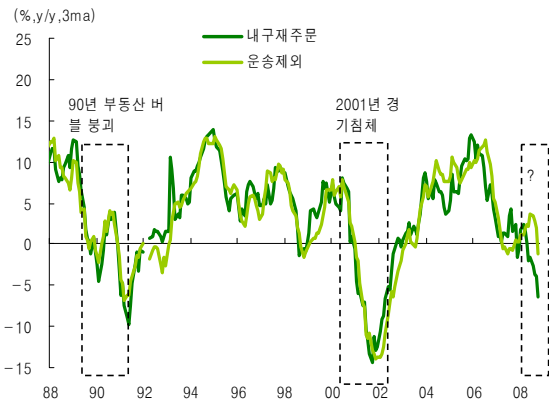
10월 내구재수주는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하는 우울한 결과를 나타냈다. 더욱이 지난 9월 내구재주문(운송제외) 역시 0.9%(-1.0%)에서 -0.2%(-2.3%)로 급감하면서 향후 제조업경기 조정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변동성이 높은 운송(항공기 및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내구재주문 역시 전월비 4.4%나 급감했는데 제조업경기의 선행지표로 사용되곤 하는 1차금속 주문이 지난달(-7.5%)에 이어 또 다시 그 폭을 확대하며 12.6%나 급감하고 기계류 주문도 6.8%나 감소하며 수요 위축을 이끌었으며 IT관련 신규주문은 그나마 2.4% 줄어드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투자 여부를 나타내는 자본재 신규수요 역시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변동성이 높은 국방자본재(지난 9월 22.2%나 급등한 뒤 10월 중에는 31.0%나 급감)를 제외한 비국방자본재 수주는 3.6% 감소했으며 여기에 항공기 부문을 또 제외한 핵심자본재의 경우 수요가 전월에 비해 4.0%나 급감해 암울한 경기 전망이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투자를 꺼리게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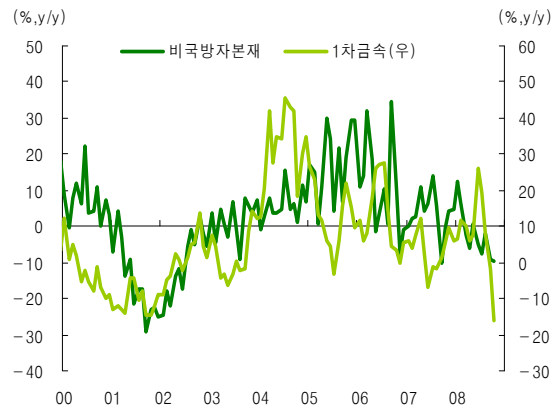
한편, 내구재 재고는 14개월 연속 증가한 결과 지난 1992년 지수 산정 이후 최대 규모인 3411억달러(계절조정)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이 무려 1.68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지난 2001년 경기 침체 당시 재고/출하 비율이 최고 1.65배에 달했던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점의 제조업경기 침체가 이미 지난 2001년 수준을 넘어섰음을 시사하는 바다.

내구재주문 추이



자료 :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DERI)

비국방자본재 및 1차금속 신규주문 추이



자료 :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DERI)

내구재 수요 급감으로 4/4분기 GDP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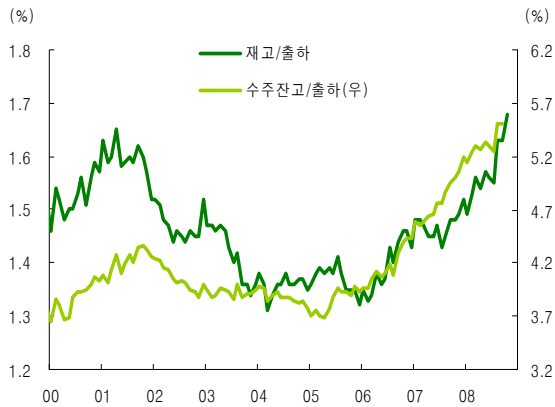
내구재주문 지표는 소매판매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경기가 위축되면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고가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컴퓨터 등과 같은 내구재 수요를 줄이게 되며 기업들은 민간소비 흐름에 따라 설비투자 규모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구재 수요가 급감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소비 및 투자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내구재주문 하위 항목 중 자본재수주 흐름은 기업 투자 여부를 가늠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핵심자본재 수요가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은 지난 3/4분기 중 소폭이나마 4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던 투자 기여도가 급격히 위축될 여지가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바다.

따라서 10월 소매판매에 이은 동월 내구재주문 급감은 GDP 내에서 약 85%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 및 투자 항목이 이번 4/4분기 중에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난 3/4분기 경제성장률(-0.5%)을 대폭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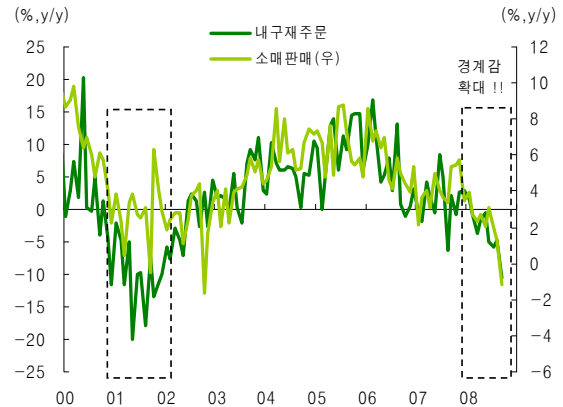
이미 지난 3/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로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는 미국 경제가 이번 4/4분기 중에는 그 마이너스 폭이 더욱 확대하며 더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적어도 내년 1/4분기까지는 경기 전반에 대한 높은 경계감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내구재 재고/출하 비율 추이



자료 : DataStream, 대신경제연구소(DERI)

내구재주문 및 소매판매액 추이



자료 : Bloomberg, 대신경제연구소(DERI)